

절박하기에 비극적 질문으로 현실을 묻는 작가, 최수철

소설이란 '불명료한 세상에 대한 명료한 글쓰기'



소설가 최수철 씨가 《몽타주》라는 신작을 출간했다. 10년 만에 낸 소설집에 작가는 고르고 고른 9편의 소설을 담았다. 분량도 500쪽이 넘어가는 데다 작가 특유의 독특한 서술 방식 때문에 쉽지 않다는 느낌을 주지만 하나하나가 치밀한 주제 의식과 완결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명품 소설’이다.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기로 하고 기자는 고민에 빠졌다. 이야기 위주의 소설이 아닌 만큼 기존의 감상과는 다른 감상을 품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결국 작가를 앞에 두고 막상 튀어나온 단어는 “관념적”이라는 진부한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이 ‘관념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제 소설에 ‘관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불명료할 뿐입니다. 거기에 감각과 꿈이 개입되면서 현실에 대한 의식과 반성이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진행이 모호하게 되죠. 저는 현실이 명료하다고 믿는 것을 경계합니다. 현실은 결코 명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명료함’을 내세울 뿐입니다. 소설은 ‘불명료한 세상에 대한 명료한 글쓰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집에 실린 9편의 작품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지워내는 줄거리 때문에 ‘잡힐 듯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이런 작가의 현실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소설이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까지 질문 자체의 진정성이나 진지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쉽고 재미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제 한계입니다.”(웃음)

미궁에 빠진 범죄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범인의 얼굴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마는 몽타주 화가(《몽타주》), 테크놀로지 미래 사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간 메신저(《메신저》), 몸이 무한히 확장되어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침내 벽에 깔려서 죽는 어느 자동차 세일즈맨(《거인》) 등 그의 주인공들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어딘가 현실의 우리를 닮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는 과연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인간 메신저 조문호가 미래 사회에서 맞이하는 종말은, 소설과 소설가의 미래에 대한 비극적 전망이다. 그 결말의 비극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그는 “절박하기 때문에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거기에는 ‘이야기’ 위주의 세태소설로 편향된 현재의 소설판에 대한 작가의 우려와 문제의식이 깃들여 있다.

“문학의 존엄성이나 권위가 유지되는 것은 소위 ‘읽히지 않는’ 소설들이 삶

과 인간에 대해 철학적 모색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삶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위해 손을 뻗었을 때 서가의 한켠에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소설도 있고, 저런 소설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균형인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문학의 판이 다시 짜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1980년대에 소설을 시작한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의 작품 생산성을 높인 측면도 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온 지 올해로 10년이지만 올 봄부터 전업 작가도 쉽지 않은 장편을 다시 시작했다. 2005년 출간된 《페스트》 이후 2년 만이다. <문학과 사회> 여름호에 《복화술사》란 제목으로 연재될 계획이다.

“한국문학이 현재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단편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편에 집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페스트》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복화술사》는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후 자유, 구원 등의 큰 주제로 5부작 정도의 장편 소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요구하는 가독성과 지금까지 천착해온 주제 의식, 그 사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 모색에 대한 첫 결과가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 | 이주연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